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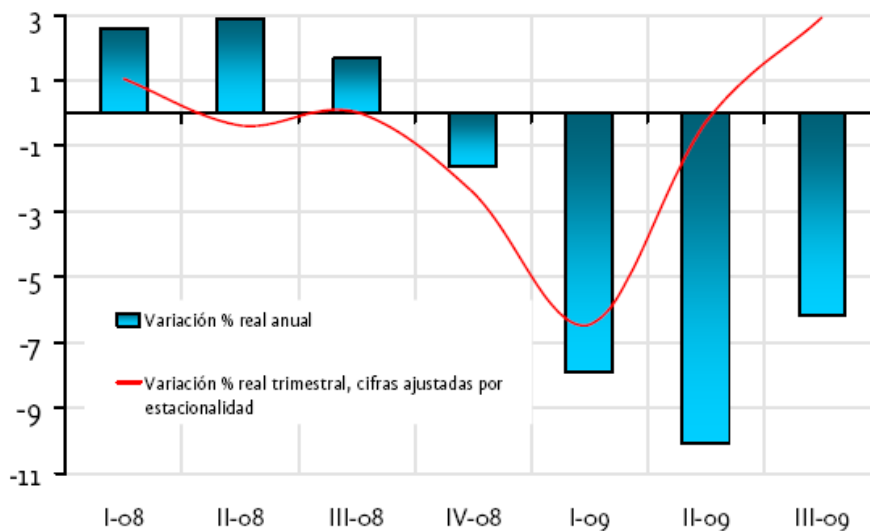
최근 멕시코 경제동향 분석

1. 멕시코 경제 동향

□ 멕시코 3분기 GDP 전기대비 2.93% 증가

- 3분기 멕시코 GDP는 전기대비 2.93%가 증가했으며, 산업별로는 3차 산업이 4.00%로 여타 산업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, 2차 산업은 2.14% 증가했으나, 1차 산업은 2.56%가 감소
- 그러나 전년동기대비로는 6.6%가 감소했는데, 산업별로는 2차 산업이 -6.6%로 감소 폭이 컸으며, 3차 산업 -6.5%, 1차 산업 -1.1%순임.
- 2차 산업은 제조업 9.9%, 건설업 6.6% 각각 감소했으나, 전기가스수도업과 광업은 2.4%와 2%가 증가

<그림 1> 멕시코 분기별 GDP 증감률 추이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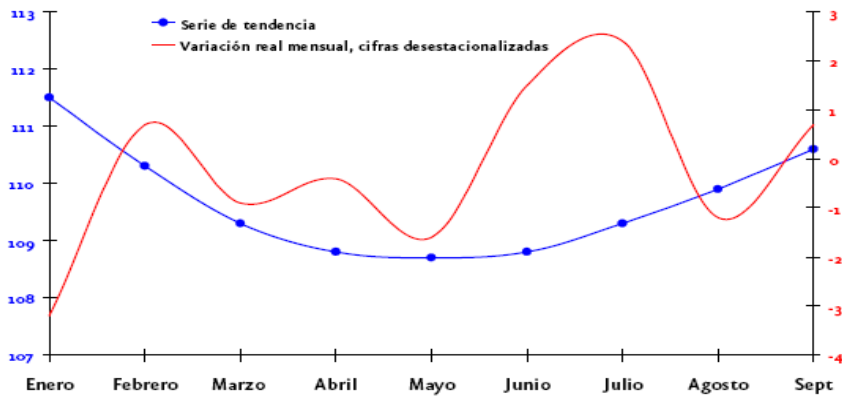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멕시코 통계청

□ 글로벌 경기활동지수(IGAE) 8월 이후 반등세

- 9월 멕시코 글로벌 경기활동지수가 전월대비 0.69%가 상승했는데, 산업별로는 3차 산업이 1.31%, 2차 산업 0.15% 상승한 반면 농업은 2.82%가 감소
- 전년동기대비로는 -5.5%가 감소했으며, 모든 산업이 다 감소세를 보였음. 특히 1차 산업이 -11.0%를 필두로 2차 산업 -5.7%, 3차 산업이 -5.4%를 기록

<그림 2> 글로벌 경기활동지수 변화 추이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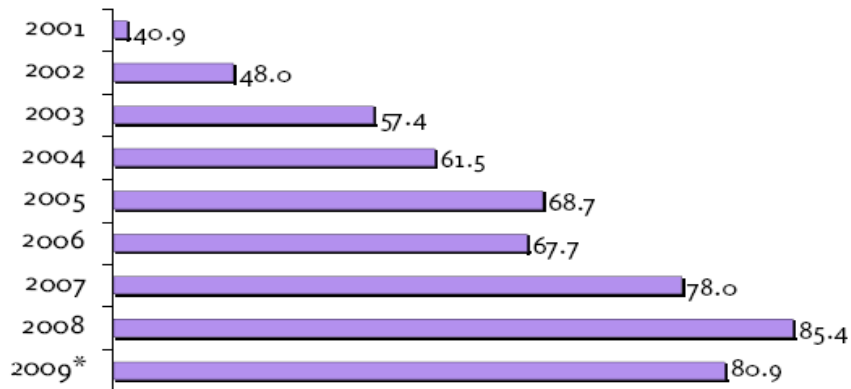
자료 : 멕시코 통계청

□ 멕시코 외환보유고 800억 달러 회복

- 11월 13일 기준 멕시코 외환보유고는 전주대비 946백만 달러가 늘어난 80,874백만 달러를 기록했으며, 전년말 대비로는 45.7백만 감소한 수준

<그림 3> 연도별 외환보유고 추이

(단위 : 십억 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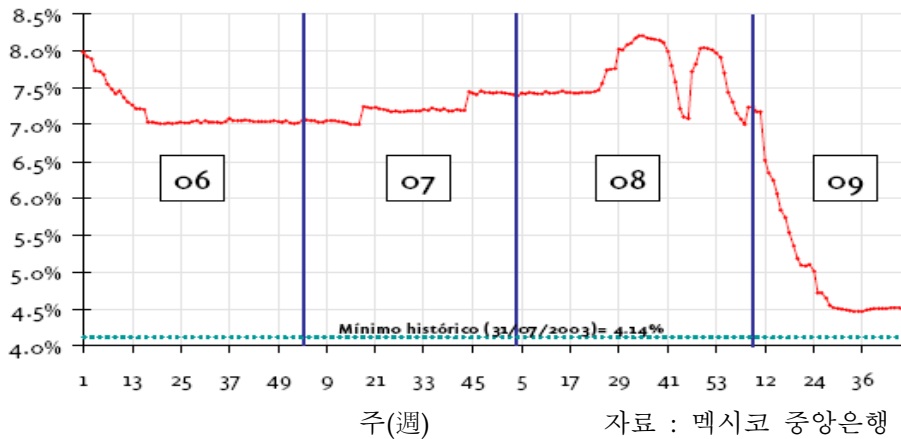
* 2009년은 11월 13일 현재 기준

자료 : 멕시코 중앙은행

□ 멕시코 기준금리 전반적 소폭 하락

- 11월 17일 현재 멕시코 기준금리는 28일물, 182일물 및 336물 모두 전주대비 각각 2bp, 2bp 및 17bp 감소하여 4.50%, 4.81% 및 5.22%를 기록한 반면 91일물은 4.62%로 전주보다 1bp 증가
- 한편, 30년 만기 채권은 전주대비 11bp 오른 8.67%를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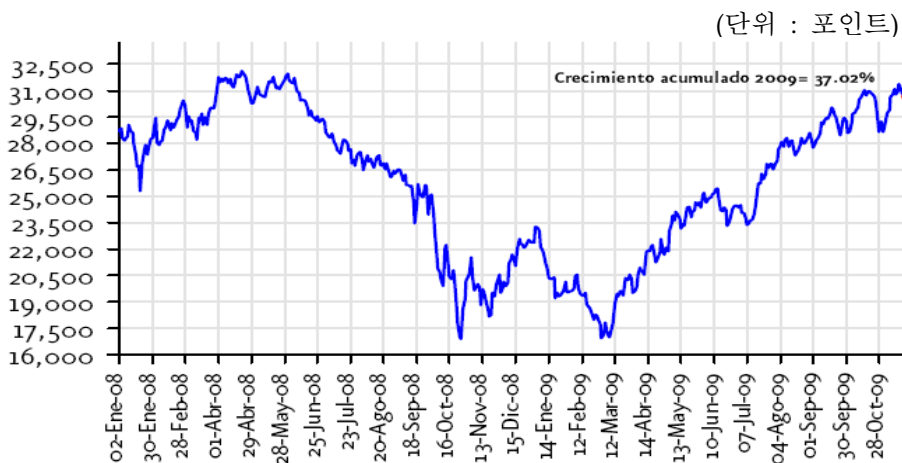
<그림 4> 연도별 주별 기준금리 동향 (CETES 28일물 기준)



□ 멕시코 증시 전주대비 1.08% 소폭 하락

- 11월 20일 마감한 멕시코 IPyC 지수는 전주대비 1.08% 하락하여 30,666.51을 기록했으며, 이는 폐소화 기준 연초대비 37.02%, 달러화 기준으로는 44.80% 오른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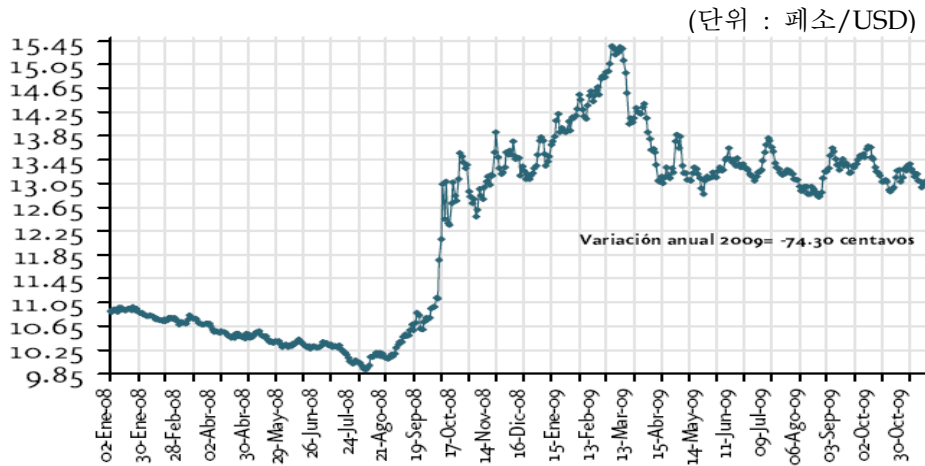
<그림 5> 멕시코 주식시장 동향



□ 페소 달러 환율 13페소 대 유지 중

- 11월 20일 마감 페소 달러 환율은 전주대비 1.17센타보 하락한 달러당 13.0895 페소를 기록했다. 이에 따라 연평균 환율은 전주대비 74.30센타보 하락 13.5762 페소 기록

<그림 6> 페소화 환율 동향(2007~200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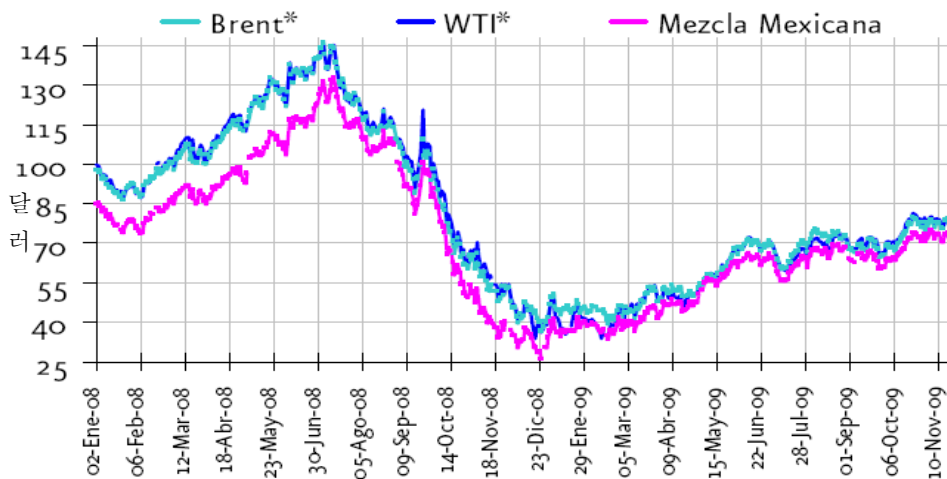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멕시코 중앙은행

□ 멕시코산 원유 수출가격 강보합세

- 11월 20자 기준 멕시코산 원유 수출가격은 전주대비 1.27% 올라 배럴당 71.57달러를 기록, 한편 텍사스중질유 및 브렌트유는 각각 0.48% 및 2.18% 상승해 76.72달러 및 77.20달러에 거래

<그림 7> 원유수출가격동향(배럴당 가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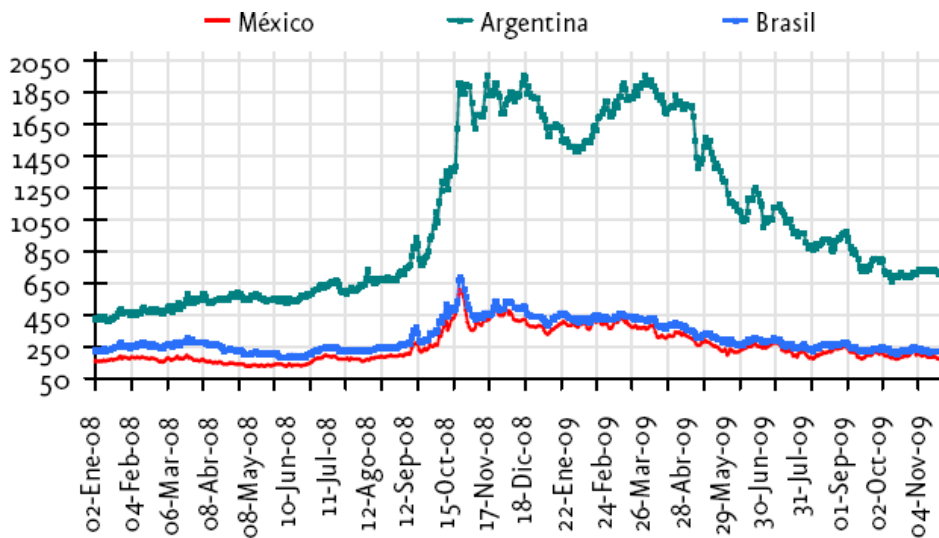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PEMEX

□ 멕시코 EMBI+ 지수 하향세 지속

- 11월 20일자 현재 멕시코에 대한 J.P. Morgan 이머징마켓 채권지수 (EMBI+)는 전주대비 15bp 떨어진 167bp 기록. 한편,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각각 25bp 및 2bp 하락한 710bp 및 217bp를 기록

<그림 8> 멕시코 국가위험도지수(EMBI+) (단위 : basis point)



자료 : JP Morgan

2. 기관별 경제 관련 전망

□ Banamex, 멕시코 중앙은행 내년 금리 인상 전망

- 11월 의회 승인된 세법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인상된 세율로 인해 멕시코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
- 세율 인상으로 인한 내년도 인플레이션율은 4.8%로 전망되며, 중앙은행은 인플레이 압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연초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5월 중에는 4.75%, 연말에는 5.75%까지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

□ Bancomer, “멕시코 외환보유고 내년에는 예년 수준 회복할 것”

- 멕시코의 올해 외환보유고는 수출,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요인도 있으나 해외근로자 송금규모가 13%나 줄었음.(예년 같으면 매년 1.5%씩 증가)

- 그러나 다음달 발표 예상되는 미국의 실업률 수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미 멕시코 근로자 취업 확대 등으로 외화송금액 규모가 전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

□ IDB 모레노 총재, “멕시코 경기 회복 지속할 것”

-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 IDB 총재는 멕시코는 올해 비록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올해 3분기부터 회복이 시작되었으며 내년 1/4분기에는 3%에 가까운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언급
- 특히 미국 경기 회복으로 인해 멕시코 역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, 내년에는 3%를 상회하는 뚜렷한 경제성장이 예상된다고 덧붙임.

<멕시코시티 사무소 제공>